

담양군, 대숲맑은 조기햅쌀 수확 시작

조기 햅쌀단지 56농가...50ha 수확

태풍으로 수확량 다소 감소할 것 예상

영산강 시원의 청정지역 담양의 '대숲맑은 조기햅쌀'이 4일 봉산면 삼지리 김덕수(67세) 농가의 햅쌀단지 0.8ha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벼 베기에 들어갔다.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고 집중호우와 연달아 이어진 태풍으로 수확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들녘마다 수확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에 수확한 품종은 전남3호(조명1호)의 조생종 벼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병해충에 비교적 강하고 밥맛이 매우 뛰어나

올해 280여 톤의 쌀을 생산, 4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대숲맑은 조기햅쌀단지에서 생산된 햅쌀은 금성농협 RPC에서 전량 산물벼로 수매하여 소포장(4kg, 10kg) 단위로 가공해 전국 롯데슈퍼, 롯데마트에서 판매된다.

군은 금성농협 공동육묘장을 이용해 조기에 육묘를 실시, 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조기햅쌀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햅쌀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육묘 구입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수확을



완료해 올 추석에도 대숲맑은 햅쌀이 소비자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판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대숲맑은 조기햅쌀단지가 농

가 노동력 분산이 가능한 이유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배면적을 확대, 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온라인 강연 운영

매천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비대면 온라인 강연 병행

구례군에서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연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비대면 온라인 강연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례군 매천도서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 지원 사업으로 'Re, 구례_지역의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다시 구례를 돌아보며 토론하는 강연과 탐방으로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강연의 참여자 중 한명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실

시간 온라인 소통이 익숙지 않았지만, 인문학 강연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온라인 강연을 진행해준 매천도서관 측에 감사하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군 관계자는 "감염병과 이 지역 침수피해가 겹쳐 힘든 시기에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이번 온라인 강연 참여자가 많았다고 본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시 온라인 실시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군, '자옥' 포도, 품질 예감

씨 없고 달콤해 고르게 선호... 롯데마트·슈퍼 판매 한창



터 어른까지 고르게 선호하는 품종이며 겉모습은 거품과 비슷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지녔다.

삼서농협 공동 선별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쳐 판매되며, 가격은 2kg에 1만9800원이다. 한 송이만 내놓아도 4인 가족 간식으로 훌륭한 정도로 포도 알이 실하게 맺혔다.

포도 산지로 유명한 장성군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자옥' 포도를 선보인다.

군은 이달 23일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북권 롯데마트 4개소, 롯데슈퍼 19개소에서 판촉행사를 갖고, 자옥 포도 53여 톤을 판매한다고 전했다.

'자옥'은 씨가 없고 달콤해 아이부

기동취재본부

나주시, 태풍 피해 배 농가 일손돕기 지원

군부대 장병·농협 직원 동참...낙과 수거·가공용 배 보관



나주시가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 나주시는 4일 금천면을 비롯한 5

개 지역 배 12농가에서 낙과 수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농업기술센

터 공무원, 지역 군부대 장병, 농협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여해 바닥에 떨어진 배를 상자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낙과를 장시간 방치할 경우 과실이 썩으면서 병충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수거 작업이 중요하다. 수거한 낙과 배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배죽 등 가공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냉동 창고에 잘 보관해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지역 농업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 일손 돕기에 참여해준

우리 시 직원들과 농협, 지역 군부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상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농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 강화 등 비상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 배 농가 수는 2019년 기준 2천 192농가로 생산 물량은 4만 7952톤을 기록했다.

전국 배 생산량 점유율은 23%에 달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 여파로 300ha과원에서 배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이제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요리해요

14일부터 온라인 교육 신청·접수...5개 과정 운영

화순군은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화순향토음식학교의 음식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명절 음식반, 자연밥상반, 허브브런치반 등 5개 과정이다. 1개 과정당 3회로 총 15회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

은 9월 1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1회 실습용 요리 재료를 교육 당일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받아, 밴드에 가입해 교육 영상을 보며 실습한 후 온라인 과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요리 재료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개 과정 신청이 원칙이다.

교육 영상은 강사가 참여해 제작한다. 지난 8월 중에도 비대면 요리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초래된 정서적 고립감과 무기력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강 신청은 전화로 진행되며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061-379-543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벼 신품종 개발 기술 자문

하반기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선정

담양군은 한국연구재단의 하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에 선정, 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벼육종재배과장 고재권 박사를 초빙했다고 밝혔다.

고재권 박사는 농촌진흥청에서 30여년간 벼 품종개발에 전념하며 신동진벼, 호품벼 등 90여 품종을 개발한 연구자로 우리나라 쌀 수량성 증대와 쌀 품질 고급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일본 상주연구관

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의 쌀 농정과 연구방향 등을 정리해 책자를 발간하였고, 한일 간 농업연구교류에 헌신한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국제협력상을 수상하는 등 일본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립 전문위원으로 쌀 품질 고급화 사업인 최고품질 거점단지 사업, 쌀 생산비 절감 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광주, 대한민국!
정인되고 풍요로운 광주 미래로

GWANGJU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